

사무엘상 9장 5-10절 말씀

<3>

- 05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
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
돌아가자
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
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
- 06 그가 대답하되
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
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
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
- 07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
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
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
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
무엇이 있느냐 하니
- 0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
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
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
- 09 (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
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
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)
- 10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
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